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첫 걸음’

나주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정책 협력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정주여건 개선·SOC 확충 총력

나주시가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354억원 규모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첫 발을 댔다.

나주시는 최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활성화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지난 해 농촌협약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0개 시장·군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농촌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공동 목표인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시·군 주도로 농촌 공간과 생활권 분석을 통해 농촌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농촌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를 구분해 가장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에 중점을 둔다.

앞서 나주시는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영산강변’, ‘원도심’, ‘혁신도시’ 3개 생활권을 구분하고 지난 2021년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중영산강변생활권(공산·왕곡·반남·동강



나주시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활성화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세지)을 우선 생활권으로 선정하고 농식품부와 최종 합의와 이날 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354억원 규모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365생활권 조성을 위한 SOC확충을 목표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촌형교통모델(공공형 버스, 100원택시)’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농촌 취약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빈집·주택 정비, 농촌 리더 양성, 인제 발굴 등 주민 참여 기반 역량강화 사업도 포함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 농촌 발전 방향에 맞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투자를 집중시켜 농촌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약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을 마친 윤 시장은 곧바로 과학기술통신부에 방문,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과 만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 현안 사업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 연구 인재들이 모여드는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 과학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 밝히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한국에너지공단의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등에 대한 과기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윤 시장은 농식품부로 자리를 옮겨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지원’, ‘쌀 값 안정화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양질의 국내산 조식료 자급율 향상’ 및 ‘경종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 소비비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해남, 탄소중립 실천마을 공모 선정...3억 확보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탄소중립 실천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거점을 조성하고, 성숙한 참여 문화 정착·확산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35개 기초 지자체에서 42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6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3억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4곳 뿐으로, 해남군이 포함됐다.

국비 3억원을 포함 도·군비 등 4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탄소중립 실천을 원하는 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연극 및 영상을 제작하며, 아파트별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음식물 감광기를 설치한다.

또한 해남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순환사업 유가보상제 적극 참여, 공동텃밭 가꾸기, 아파트 계단 표창 설치, 탄소중립 실천 우수아파트 사업 추진, 환경의식 강화 교육, 플리마켓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박병태 기자

장흥, 코로나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18세 이상 주민 내일부터 신청

장흥군은 코로나 극복재난지원금을 18세 이상 주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2022년 5월 31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이다. 장흥군 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F6)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장흥=이옥현 기자



최근 열린 도초도 섬 수국축제.

/신안군 제공

신안, 섬 가을 수국축제 준비 ‘한창’

신안군은 현재 섬 가을 수국축제를 위해 목수국 전정 작업 등 속도를 내는 등 축제준비에 한창이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는 9월 도초도 수국공원 일원에서 ‘섬

가을 수국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수국공원 주변에 조성된 판파스그라스 데마공원과 함께 가을에 피어오르는 수국이 절정을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이주열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사적 파편 피해민가 방문

“상무대 재발 방지책 마련 협조”

김한중 장성군수(사진)가 최근 진원면 포사적 파편 피해 민가를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했다.

포사적 피해가 확인된 것은 지난 13일이다. 이날 오전 진원면 상림2리 학동마을 주민이 빈집 청소 중 지붕과 현관문 파손 흔적과 길이 25cm, 두께 2cm 크기의 파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했다.

이후 상무대는 군 공직자, 경찰, 주민 입회 하에 현장을 확인하고, 파편 회수 등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 학교장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펴봤다.

또는 담양군 대전면 소재 황룡포사적장에서 발포된 것으로, 상무대 측은 해당 주민에게 피해 배상을 할 계획이다. 또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포탄 탄착점 토사 보강, 포 종류 변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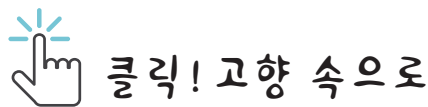


조하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한 김한중 군수는 “상무대가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 전달

장흥군과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점숙)는 최근 저소득층 아동 22명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저소득 가정 희망사다리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단체회원 11명이 참석해 화장지, 김 라면 등 생필품과 먹거리를 아동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물으며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했다.

이점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희망사다리사업은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추진하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평면 돌담카페 박찬송 대표, 후원금 기탁

담양군 장평면 돌담카페 박찬송 대표가 최근 장평면사무소에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박찬송 대표는 장평 관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다른 고향 사랑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기탁된 후원금은 장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지

역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안영선 장평면장은 “기탁해준 후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폭염으로부터 면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강진경찰, 미귀가자 조기발견자에 감사장

강진경찰서는 최근 미귀가자 조기 발견으로 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김중근 버스기사를 찾아가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김중근 버스기사는 지난달 13일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간 정신지체장애인 A씨가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아 가족이 찾고 있다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곧

바로 승객 중 미귀가자의 신변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위동섭 강진경찰서장은 “미귀가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경찰협력단체·마을이장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